

지역 소식통

부안군, 부안댐 광역상수원 지킴이 중심 수질보호 전개

부안군은 부안댐의 수질을 보호하고 오염원 관리를 위해 부안댐 광역상수원지킴이를 중심으로 지난 4월부터 이달 말까지 다양한 수질보호 활동을 전개 중이라고 밝혔다.

군은 올해 부안댐 광역상수원 지킴이 13명을 선발해 상수원의 통로로 활용되는 부안댐을 보호하고자 오염행위 감시 및 계도 활동, 방치 쓰레기 수거 등 지속적인 수변 정화 활동을 펼쳤다.

부안댐 광역상수원지킴이 사업은 부안댐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이 높은 지역주민으로 선발해 상시 감시가 가능하고 수질 오염사고 등 비상 상황 발생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 지역사회와 건강과 안전을 증진시키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부안댐 상수원 보호구역의 수질 오염 예방활동을 위한 광역상수원지킴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고위험군 코로나 19 무료 예방접종 시작

정읍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증화와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1일부터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로, 내년 3월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세부 일정을 보면 7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는 11일부터 접종을 시작하며 70~74세 어르신은 15일부터, 65~69세는 18일부터 각각 예방접종이 시행된다.

특히 이번 접종은 독감(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두 가지 백신을 함께 접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접종 대상자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으며,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은 시 보건소 홈페이지나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주환경 공모 잇따라 선정 쾌거

## 고창군, 유아친화형 체육센터 선정 · 자전거 모범도시 국비 확보

고창군이 '자전거 모범도시'에 이어 '유아친화형 체육센터'까지 정주환경을 새롭게 바꾸는 공모에 잇따라 선정되며 합박웃음을 짓고 있다.

10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의 '유아친화형 체육센터' 공모에 선정됐다. 총사업비 98억원(국비 30억원, 지방비 68억원)을 들여 고창읍 율리리 스포츠타운 내 연면적 약 1864㎡, 지상 2층 규모로 다목적체육관, 실내놀이터 등을 건립한다. 내년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6년 착공, 2028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다.

올해 시작된 문체부 신규 사업으로, 군은 최근 영유아의 체육활동 수요 증가 등 연령별 체육시설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해 도내 처음으로 이번 공모에 선정됐다.

지역 어린이집·유치원 등과 연계, 날씨 관계없이 다양한 놀이와 체육활동이 가능한 시설로 활용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8일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전거 모범도시 공모 최종 선정'도 통보받았다. 국비 5억원을 포함 총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해 7가지 유네스코 보물을 탐방하는 자전거 노선을 구축한다.

우선적으로 읍내 생활권에서 고인돌 유적지까지 9km 구간에 대해서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연결, 요철·파손 정비 및 자전거도로의 안전시설 확충에 나선다.

고창군의 잇따른 공모선정은 최근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 기조 속에서 국가예산 확보의 효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공모사업은 국가 정책의 추진 방향과 우리 지역의 강점이 가장 잘 부합된 지역맞춤형 정책이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막바지 단계에 돌입했다.

## "기본적 생활권 보장 위해 노력할 것"

### 정읍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박차

정읍시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막바지 단계에 돌입했다.

이번 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올해 시는 기초생활 수급자 3011가구에 주거급여(임차료, 수선유지비)로 약 51억원, 저소득층 61가구를 대상, 그린리모델링 사업에는 2억원, 소의계층 364가구에 대한 주거시설 안전점검·보수 사업에 1억원, 장애인 12가구 주택개조 지원사업에 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각종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시는 노후 주택을 제대로 보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및 소의계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비(복권기금) 1억원을 받아 시행된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 및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신건강의 날 맞아 시민 캠페인... "마음 건강 챙기세요"

### 정읍시, 정신질환 편견 해소 위한 캠페인 · 참여 부스 운영

정읍시는 10일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시민들에게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캠페인과 참여 부스를 운영했다.

정신건강의 날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매년 10월 10일에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정됐다.

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의 날을 홍보하기 위해 SNS와 홈페이지

를 활용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쳤으며,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게시해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캠페인은 거점성 캠페인과 이동성 캠페인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를 얻고 검진을 받을 수 있었다.

거점성 캠페인에서는 시청, 수성근린공원, 전북과학대학교, 정읍터미널에서 정신건강 부스를 운영해 시민들에게 상담과 정보를 제공했다. 이동성 캠페인은 유동 인구가 많은 6곳의 장소를 직접 돌아다니며 정신건강 홍보 활동을 펼치고 정신건강검진을 제공했다.

이밖에도 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10월 한 달 동안 정신 건강검진에 참여한 시민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제공하고, 스트레스 기계를 이용해 측정된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낮은 참여자에게도 선물을 증정하는 등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정읍시농기센터, 휴게소서 태추단감 홍보 판촉

정읍 태추단감이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전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나섰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관은)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정읍 고속도로휴게소(상행선) 내 행복장터에서 태추단감 홍보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정읍농협과 함께하는 지자체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타 지역 소비자들에게 태추단감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해에는 서울 경기, 전남 등 도시지역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추가 구매 문의가 쇄도한 바 있다.

정읍 태추단감은 아삭한 식감과 풍부한 과즙으로 배단감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다른 단감과 차별화된 매력을 지니고 있다.

겉질째 먹어도 부담 없는 맛과 식감 덕분에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특히 저장성이 약해 10월 한 달 동안만 맛볼 수 있는 귀한 단감이기도 하다.

정읍은 기후 변화로 인해 단감 재배의 한계지역으로 꼽히지만, 지역 농가들은 고도의 재배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태추단감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와 병해충 피해로 일부 과원의 수세가 회복 중이라 평년보다 수확량이 줄어든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현재 정읍에서는 88농가가 31ha 면적에서 태추단감을 재배 중이며, 시 농업기술센터는 방조광과 방풍망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기술지도를 통해 태추단감의 품질을 더욱 높이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창모양성제 개최... 국내 · 외 자매도시, 고창 방문 잇따라

'제1회 고창모양성제'가 화려하게 개막한 가운데, 국내 · 외 도시들이 고창을 잇따라 방문하면서 축제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10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모양성제에 9개 국내 · 외 교류도시가 참여한다. 이는 역대 모양성제를 방문한 자매도시 중 가장 많은 수이며, 함께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고 우호를 다지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국내도시 중에선 서울시 마포 · 성북

구, 부산시 동래구, 광주광역시 남구, 경상북도 상주시,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의 자치단체장과 축하사절단이 참여한다.

정선군은 지난 9일 전자제에 앞서 '정선 아리아리리 공연단'에서 뮤지컬 퍼포먼스 아리아리리 공연을 펼치며 큰 호응을 얻었다.

국외도시에선 말레이시아 미리시, 캄보디아 관계자들이 고창을 찾아 축제 일정에 함께하고 있다.

미리시 방문단은 작년 5월 미리시 승격 기념의 날 행사를 방문했던 고창군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이번에는 모양성제를 찾았다.

방문단은 2박3일간 고창바닷가 투어를 진행하며 경제 분야 교류를 통해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 해군함정 고창함 함장과 해군 관계자들도 고창을 방문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